꽃피는 봄 되니 상월결사도 '기지개'

상월결사 계승하는 사찰 정진 모임 확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찾아오는 불자들을 기다리는 불교에서 저잣거리에서 수행하며 찾아가는 불교로의 변화를 선언한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에서 4월부터 '상월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수국사에서는 청년활동조직인 '상월청년회'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정진 확산을 기대케 한다.

서울 봉은사는 4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간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위례신도시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잇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총무원장)을 비롯한 9명 스님은 한겨울 온기 없는 천막 안에서 매일 16시간 이상을 정진했다. 엄격한 청규대로 90일 내내 하루 한 끼 식사에 묵언정진 했고, 삭발과 목욕조차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으로 촌음을 아껴가며 수행에 매진했었다.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진행되는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는 매일 6시간씩 정진하면서 일체 말하지 않고 하루 한 끼 식사와 참선 명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정진 기간 내내 사찰을 벗어나지 않고 경내에 마련된 각자의 텐트에서 생활하며,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희망자는 누구나 동참가능하며 4월 1일부터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temple.bongeunsa.org)로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이 건립되고 시민선방이 운영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02)3218~4826



지난해 11월 고창 선운사서 진행된 본말사 걷기순례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스님들이 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

수국사 20일 상월청년회 창립
봉은사 '상월템플스테이' 계획
4월 7일 해인사 상월걷기순례
청년 · 시민 참여 확대 계획도

서울 수국사는 3월 20일 수국사에서 수미산 상월청년회를 창립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주축으로 최근 구성된 불자배가운동조직 수미산원정대의 연장선으로 30여 청년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불자 배가운동에 나서고자 구성한 조직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현장에 상주하며 정진 스님들을 뒷바라지한 수국사 묵언템플 지도법사 효연 스님이 상월청년회 지도법사로 나서 구성을 유도했고,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청년회 구성에 호응했다. 상월청년회 준비 소식에 동국대 학인스님들의 결사체인 칠불회 스님 13명도 대학생들의 지도법사로 나서기로 하며 힘을 보탰다.

상월청년회는 이날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는다. 묵언 · 걷기 명상, 1박2일 새벽기도를 비롯해 자원봉사 등 수행과 실천을 함께 하기로 했다. (02)356-2001

지난해 11월 28일 본말사 상월걷기순례로 상월결사 정진의 전국사찰 전개도 동안거 기간을 지난 4월부터 재개된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7일 대장경테마파크에서 출발해 소리길을 따라 해인사와 가야산 산내암자, 그리고 해인사 장경각까지 종주하는 본말사 상월걷기순례를 진행한다. 고창 선운사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상월결사에 참여하는 스님들과 해인사 대중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선운사 상월걷기순례 때처럼 스님들은 대가사를 착용하고, 108염주를 지참,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묵언 걷기에 나선다.

의정부 정혜사에서는 이미 3월 14일 백석천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10km 구간에서 상월걷기 순례를 진행했으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걷기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는 남양주 봉선사와 동안거 이후 참여의사를 밝힌 해남 대흥사 등도 순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해서는 건물불사보다 인간불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 사상을 담은 현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현대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청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월결사로, 결사가 보다 대중화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대행선, 도량탑에 담은 시도 높게 평가"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도윤수 교수 '도량탑' 재조명

3월 20일 안양본원서 진행 한마음선원 유튜브 생중계

탑은 사찰을 상징하는 독특한 조형물 가운데 하나로 때에 따라서는 불교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인식된다. 또한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데 이어 부처님 자체를 대신하는 위상을 갖게 된 탑은 사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자 신앙의 대상이기도 이다. 이런 전통탑과 대행선으로 규정되는 한마음선원 도량탑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3월 20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 8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제 1발표 '밀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의 법어'와 제 2발표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의미'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마음선원의 도량탑과 우주탑의 의미가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에 조성된 도량탑 전경.

도윤수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의미'를 주제로 한 제 2발표에서 한마음선원 석탑이 현대불교미술의 새로운 양식을 정립하는 상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마음선원 도량탑은 이미 제작자인 김기상 아리건설 대표의 논문을 통해 '고구려 다각다층탑과 고려 팔각원당형 승탑을 모티브로 오방신앙과 이를 통한 만다라 구현을 상징함이 정의된 바 있다.

도 교수는 "현대의 언어로 대행선을 펼쳐 포교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대행스님처럼, 과거의 형식과 양식이 아닌 현대적 형식과 양식을 창출하고자 한 부분은 그 배경사상과 일통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교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사상적 완성도가 극히 높아진 현대불교에서 새로운 사상을 담은 탑을 건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마음선원의 사상을 도량탑이라는 상징물에 담아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불탑, 승탑 형식의 결합과 새 탑신구성법에 대한 논리 보강 등의 점진것 개선을 거쳐 한마음선원의 전형탑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선원 도량의 법당과 도량탑, 큰 스님 동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일체 생명, 일체 제불이 한마음이며, 바로 자신 마음 속의 탑"이라며 "정성을 다해 도량탑 불사를 하던 분들이 생각난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 현재의 선원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투명가림막 설치, 3m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 됐다. 이날 생중계에는 약 200여 불자들이 참여해 온라인 상에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덕현 기자

갑사 대웅전 · 대곡사 범종루 보물 지정

문화재청 23일 지정 공고 거조암 영산전, 거조사로

충남도 유형문화재 공주 갑사 대웅전과 경북도 유형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공주 갑사 대웅전과 의성 대곡사 범종루, 순천 팔마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또한,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명칭을 원래 명칭인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변경했다.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 건립연대는 17세기 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물로 지정된 갑사 대웅전 전경.

문화재청은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조성된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돼 17세기 중 · 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됐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은 "대곡사 범종루는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거조암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이름으로 원래 명칭은 거조사였다. 문화재청은 명칭 변경된 국보 '영천 거조사 영산전'의 안내문 개선과 홍보를 사찰과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사회적 경제 스님 연수교육 시작

불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월 21~23일 실시

사람과사회적경제 불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경제, 불교와 만나다'를 주제로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2014년부터 교육원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번 교육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창업 확산과 사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보다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스님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역 내 사찰의 기여도를 높이고 포교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수교육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일 5시간씩 서울 종로구 창신동 종로여가 등에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개된다. 관심 있는 스님들은 사람과사회적경제로 문의해 이메일(human.org@gmail.com)로 4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